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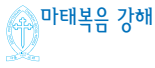
§ 2014년 포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마 13:53-58)

People in Jesus' Hometown

(Matt. 13:53-58)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들을 다 해 주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신 것은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제 고향 나사렛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54절).

고향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정거립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 주재에 지체 높으신 랍비처럼 어찌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야?”

고향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57절)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축하해 줄 수도 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디도라고 하는 이방인 청년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 했고 디도는 훗날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딤후 1:4).

나이로 보나 신앙의 경륜으로 보나 디도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여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된 것을 기뻐하며 디도를 향하여 자기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무지와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58절).

병행구절인 막 6:5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고 말씀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억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존경 받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축망을 받던 사람이 잘 되면 자기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을 수 있지 모릅니까. 하지만 그리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어릴 때 동네 사람 심부름이나 하고 늘 도와주어야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자기의 고향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인도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을 때 그를 배척하는 악한 병폐가 이 사회와 교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이들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시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fter He had finished all of his parables, Jesus came to his hometown. The fact that He came to His hometown was that He did not pine for home but He came to preach the Gospel to his hometown people in Nazareth.

“Coming to his hometown, he began teaching the people in their Synagogue, and they were amazed. Where did this man get this wisdom and these miraculous powers?”(v. 54).

Jesus who came to his hometown, first of all, began teaching the people in the Synagogue, but their reaction was strange. They were sarcastic rather than recognized his wisdom and power. “Isn’t this a carpenter’s son? Though he is only a carpenter, just like a Rabbi of high station, how can he teach people in the Synagogue?”

About this reaction of his hometown people, Jesus said, “Only in his hometown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v. 57). This is just like that if an unknown person bought an estate, we don’t feel bad and can congratulate him. On the other hand, if an acquaintance bought an estate,

we feel jealous of our cousin’s success and do truly not congratulate his success.

During his first evangelical tour, the Apostle Paul met a young man whose name was Titus. Later on, he became a great Christian and a worker of the Gospel. “To Titus, my true son, in our common faith,” (Tit 1:4)

In both age and experience of faith, Paul was a father to Titus. But Paul was happy because Titus had grown well in Jesus Christ, and became a worker of the Gospel. And Paul told Titus that he was his fellow worker.

Jesus hometown people excluded Jesus because of their ignorance and human prejudice. Nevertheless, the loss was not on Jesus but on the hometown people.

“And he did not do many miracles there because of their lack of faith” (v.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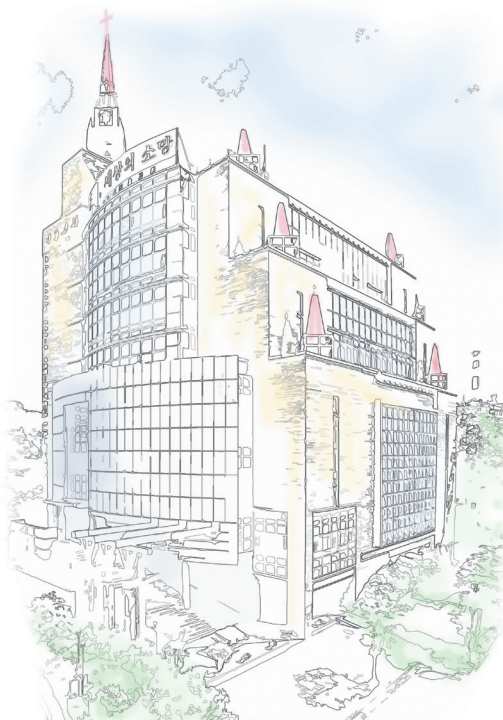
Jesus said the same thing in a parallel,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in the book of Mark 6:5. This means that Jesus was not able to do any miracles at an unwelcoming place. He does not work against people’s will because he is a man of good character.

If one who was born in a very rich and admired family, is faithful, and studies hard, and is a man of promise from the birth, he may be welcomed in his hometown. On the other hand, though the other who was not born in a good family, goes an errand for his village people, and lives his life by receiving help from others, becomes a high ranking official, if all people must obey his word now, they do not recognize him.

My beloved Christians,

The hometown people appeared in the text. Especially, when they thought that someone who was not better than themselves would lead them, they excluded him. We should make an effort in order that such an evil to exclude him may disappear in our society and in the church.

Moreover, those who have the deep wisdom of age should push the next generation from behind and pull them up front in order to continue the great work of faith.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used to extend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홍해작전, 승리의 행군 계속되다

6월14일(토) 현재 연인원 8,272명 참석
6월 6일(금)~25일(수) 새벽 5:00~6:00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2014 홍해작전(참모장 이영기 장로)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히 11:16)라는 주제로 승전을 위한 행진이 6월 14일(토) 현재 연인원 8,272명이 참석하여 홍해를 건너기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25일(수)까지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중심으로 하여 순례자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홍해작전에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다락방별로 카풀을 권장한다. 또한 출석을 격려하기 위하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7번 이상, 청년

1, 2부는 14번 이상, 장년부는 전 기간을 출석하면 마지막 날 의미 있는 기념품을 준비하여 시상한다.

6월 21일(토)은 "다음세대를 위한 축복기도의 날"로 정하고 영아부부터 청년1, 2부까지 모두 참석하여 축복기도를 받는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천로역정"을 머리말로 하여 4행시를 공모하며, 영어예배부는 "PILGRIM"으로 7행시를 공모한다. 교육1국은 산문, 그림 그리기 등 교회 학교별로 5점씩 선정하여 6월 22일(주) 오후 2시까지 홍해작전본부로 제출하면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사진 : 정처은 집사 (홍해작전 본부)

주일 주차 안내



많은 성도들께서 B.M.W.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주일에 교회 지하 주차장 운영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강남구청의 협조 하에 은마아파트 쪽 대로변에 주일에 주차하였으나 계속된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몇 주 동안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마아파트 쪽 대로변에 주차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강남구민회관(대치역 4거리 하이마트 옆) 지하 주차장 2,3,4층(100대 주차 가능)에 주일 오후 7시까지 무료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3)

(문 133) 시34편의 제목 중 아비멜렉은 아기스의 오자가 아닙니까?

(답) 시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삼상21:13을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했을 때 다윗으로 판명되어 다윗의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드왕 아기스와 무리들 앞에서 다윗은 미친 채하고 대문밖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이 자를 내게 데려와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고 하여 다윗을 그곳에서 몰아내게 했습니다; (삼상21:11-15)

아기스를 시편에서 아비멜렉이라 한 것은 시편에 제목을 추가한 이들이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왕의 전기는 히브리인들에게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잘 알려져 있었는데 후기 세대의 지식인들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과오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으로 불려진 것은 전혀 실수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듯이(삿6:32), 솔로몬을 여디디아로(삼하12:25), 시드기야를 맞다니야로 불렀듯이(왕하24:17) 블레셋의 왕들은 하나의 이름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기스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나온 블레셋의 왕은 그랄왕 아비멜렉으로 불리웠고(창20:2) 후에 이삭의 때에도 블레셋왕 아비멜렉이 나온 것(창26:1)으로 보아 아비멜렉은 파사의 다리우스처럼 왕조의 이름으로 붙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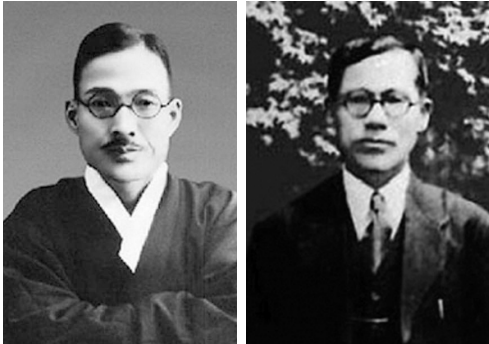
블레셋왕들의 이름 중 구약에서는 아비멜렉과 아기스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전 11세기부터 주전8세기 여간에 블레셋왕들 중 아비멜렉과 같은 이름들이 지속된 것은 있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순교자기념주일

순교자의 신앙따라



믿음의 선각자들 - 주기철 목사(좌) 손양원 목사(우)

순교자(martyr)의 어원인 헬라어 마르티스(μαρτυς)는 원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테반의 순교(행 7장)를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었고(행 8:1)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습니다(행 9, 22, 26장). 기독교가 퍼져나가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는 힘없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저들은 로마 대화제의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군중들의 노리개감으로 삼아 맹수의 밥이 되게 하였고,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κύριος,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받거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갑, 저스틴, 오리겐, 이그나티우스 등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의 대 박해 때인 주후 107년에 순교한 안디옥의 노(老)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체포되

어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구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로마의 박해와 핍박과 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순교자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 순교자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저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편집부)



2014 홍해작전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홍해작전!

예승이와 함께하는 홍해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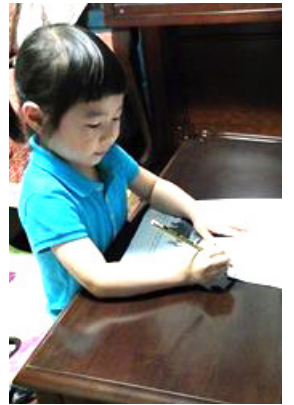
한상욱 집사 (8교구)

우리 집은 매년 6월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알람시계가 적막을 깨고 울려 퍼집니다. 잠시후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신선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부지런히 자동차로 40분을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번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에는 45개월 된 우리 집의 둘째 아이 예승이도 함께 참여합니다. 작년엔 몸만 교회에 왔다 뿐이지 그저 유모차에 앉아서 잠을 자기 일수였지만 올 해에는 예승이에게도 특별한 홍해작전입니다. 예승이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분당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와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제법 집중해서 듣습니다. 물론 아직 너무 어려서 새벽시간 말씀을 다 이해하진 못 하지만 '홍해작전과 함께하는 유아부 - 꼬꼬마 천로역정' 교재 덕분에 천로역정의 굵직한 줄거리와 그 의미를 제법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아부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흥미로운 시각적

자료들을 이용한 '꼬꼬마 천로역정'은 예승이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도 천로역정 이야기가 주는 영적 의미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우리 딸 예승이의 영적인 성장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어린 아이들에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교회가자고 아이들을 깨워도 짜증을 내거나 교회가기 싫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듣는 습관을 배양함으로써 다음세대의 부흥에 동참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유아부 - 꼬꼬마 천로역정



이현수 집사 (12교구)

서울교회 전통인 홍해작전은 저희 가정에게 있어 매우 뜻깊은 특별새벽기도회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작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의 수많은 기도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셨고, 특히 예은이와 온유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램은 '본향을 향해가는 순례자-천로역정'의 말씀을 예은이와 온유도 알게 하는 것이었는데 구분혜전도사님께서 '홍해작전과 함께하는 유아부 - 꼬꼬마 천로역정' 교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녁시간마다 아이들과 함께 교재를 읽고 기도도함으로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가르쳐줄 수 있어 매우 은혜롭고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홍해작전기간에 더 많은 가정과 다음세대들이 나와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묻는 귀한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빠와 함께 열심히 꼬꼬마 천로역정을 공부하는 예은이와 온유

유아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게 편집한 '홍해작전과 함께하는 유아부 - 꼬꼬마 천로역정'



비전2020 운동- 해병대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더 많은 영혼구원을 위해



차동길 위원

(비전2020운동본부)

있어 감사해요:

여기서 처음 만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평양에 홀로 서있는 저에게 손 내미신 주님 감사해요: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감사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부모님의 품을 떠나 홀로서기에 들어선 젊은이들이 지금도 영적 전투현장에서 갈급함을 호소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달려간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 교회에는 옛된 모습의 훈련병들이 1,200석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전 벽을 가득 메운 노랑 메모지가 갈급한 영혼의 모습을 생생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배고픔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 감사해요:

여기서 처음 만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감사해요:

열 네 분의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의 도움으로 589명의 훈련병들이 세례와 축복기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우주만물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더 이상 근대 생활이 두려움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게 맡기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속스럽지만 이렇게 처음 고백해 봅니다."

서울교회는 1998년 비전2020운동본부를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군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또 다른 전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눔의 집

하절기를 맞아 나눔의 집에서 성도님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나눔의 집은 서울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전도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류, 신발, 가방, 소형 가전 등 무슨 물건이든 환영하며 기왕이면 깨끗하게 손질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5일(주일) 청주 동산교회에서 두차례 설교한다 20일(금)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기독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수상 : 정지예(정진문,정유정집사 딸) 한국발레콩쿨대회 중학교고학년부문 금상

■ 주일식당봉사 :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6.15) 엘리야선교회 뱀뱀전도회(6.22)

■ 금주의 식사 제공 : 이길재 집사 유영숙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부침개 전도대!

70인 전도대의 화평팀과 인내팀이 지난 목요일 한티공원 앞에서 상반기 부침개 전도를 하였다.

사진 : 이준태집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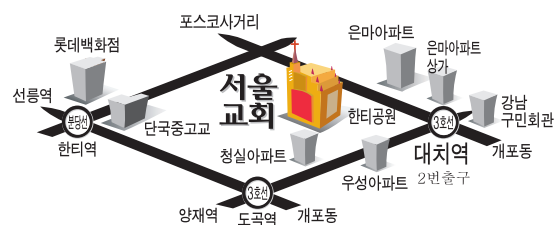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계속되는 흥해작전을 통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도록
2. 70인 전도대의 모든 전도사역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3. 강남구민회관의 주차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교회 주변 주차 문제가 해결 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